



## 아시아 문화 허브, 싱가포르

과거를 잘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싱가포르는 전통과 첨단 of 균형을 잘 보여주는 나라다. 통유리 외관이 눈부신 아파트와 쇼핑몰 사이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이민자들의 문화유산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 Cultural Cocktail

Singapore has reached a fine balance between preserving its past and unlocking its future. Wedged in amongst its glittery glass condos and malls are heritage areas where its Chinese, Malay and Indian cultures are on full display.





얼마 전 재단장을 거쳐 싱가포르 특유의 열대성 폭우에도 끄떡없도록 지붕을 설치했다. 차이나타운 문화유산센터도 올해 말 재개장을 목표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최첨단 쌍방향 전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1960년대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과 달리 보다 폭넓은 시대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실제로 중국 이민자들의 위험천만한 여정과 차이나타운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방대한 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불아사(佛牙寺)는 당나라 양식을 좇아 만다라 문양 형태로 지은 건물이다. 3층에 위치한 불교문화박물관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전시되어 있고, 4층에는 황금 320킬로그램으로 만든 거대한 탑에 이 절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석가모니 치아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 차이나타운의 불교와 힌두교 사원 중 가장 화려한 곳은 타밀 힌두 족의 성소이자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스리 마리암만 사원이다.

대관람차인 싱가포르 플라이어 위에서는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왼쪽 페이지). 유서 깊은 역사 지구인 차이나타운(아래).

The Singapore Flyer affords a view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pposite), beyond which lies the heritage area of Chinatown (below).

Food Street, which recently underwent a makeover and now has a roof to shelter it from tropical downpours. The Chinatown Heritage Center is also undergoing a renovation and is set to reopen later this year. Visitors will be greeted with a more interactive experience, with exhibits on how Chinese migrants reached Singapore and the history of Chinatown.

Another tourist draw, the Buddha Tooth Relic Temple and Museum, built in the style of the Tang Dynasty and in the form of a mandala, has been open to the public since 2007. On its third floor, the Buddhist Culture Museum contains relics of the Buddha including bone and tongue. The Sacred Light Hall, on the fourth floor, houses the temple's centerpiece and namesake, the Buddha Tooth Relic, in a giant stupa made of 320kg of gold.

Of all the ornate Chinese, Buddhist and Hindu temples in Chinatown, one of the most colorful is the Sri Mariamman Temple, which is also one of the main places of worship for Tamil Hindus in the country.

올해로 독립 50주년을 맞은 싱가포르는 최근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다채로운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과거 시청과 대법원이던 건물을 개조해 이번 달에 개장할 예정인 국립미술관에서는 싱가포르 및 기타 지역에서 활약하는 현대 예술가들의 대규모 컬렉션 전시를 준비 중이며, 지난해 6월에 공식 개장한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각종 운동 경기를 필두로 공연예술과 쇼펡, 식당가를 아우르는 대형 복합 시설을 표방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과감한 융합과 결합이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이 도시국가 자체가 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어울림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양성을 대표하는 차이나타운과 리틀인디아, 그리고 캄퐁글람은 일찌감치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에서 보존을 결정한 바 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가장 강렬히 느낄 수 있는 차이나타운은 길거리의 흥등과 고풍스러운 상점이 특징이며, 전통 시장과 관광 상품을 파는 매점이 즐비하다.

각종 가게와 식당은 물론 노점과 행상에서 파는 음식은 후각을 자극하는 딤섬부터 껌질이 바삭바삭한 오리꼬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 스미스가(街)는 이른바 '떡자 골목'으로 조성되면서 아예 차이나타운의 음식 거리로 통하게 되었는데,

This year Singapore is celebrating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its independence with several grand unveilings, including the National Gallery, which opens this month and houses a massive collection of modern art from Singapore and the greater region. While the art space is a fusion of the former City Hall and Supreme Court, the Singapore Sports Hub, which opened in June 2014, is a versatile megafacility. Such audacious mixing and melding seems to come naturally to Singapore — a city-state that is itself an irresistible blend of Asian cultures.

Each of Singapore's main heritage areas — Chinatown, Little India and Kampong Glam — have been flagged for conservation by Singapore's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Best representing the crossroads of past and present is Chinatown, adorned with hanging red lanterns and overflowing with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o the shops and restaurants, food carts and hawkers sell everything from fragrant dim sum to crispy duck. The main food area is Smith Street, or Chinatown







**다채로운 문화색** 이렇게 전통의 흔적이 빼곡한 차이나타운이지만, 한편에서는 28 홍콩 스트리트, 오퍼레이션 대거, 그리고 지거 앤드 포니 같은 칵테일 바가 성업 중이며, 미식의 천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부킷파소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속한 케옹사의 로(路)는 아르데코풍의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섰는데, 최근 들어 세련된 호텔과 비스트로, 카페와 부티크가 속속 들어서면서 싱가포르 최고의 명소로 부상했다. 차이나타운의 중심부를 벗어나 안시양힐 언덕과 클럽 가가 교차하는 지역은 조금 더 이국적인 분위기가 넘실거리는데, 페루풍의 타이거스 밀크 같은 식당과 켈 바를 비롯한 세련된 술집이 이방인의 향수를 달래준다.

그런가 하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과 리닷 미술관 등은 차이나타운을 활기찬 예술 현장으로 이끈다. “싱가포르 예술계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리닷 미술관 조르조 필라 관장의 말이다.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는 10년 넘게 시각예술의 집결지로서 자리매김해온 그간의 명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 입주한 상징적인 건물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눈에 띄는 이 건물 덕분에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사람이

While Chinatown’s core is filled with signs of the past, the area is also becoming known for cocktail bars like 28 Hong Kong Street, Operation Dagger and Jigger & Pony. Keong Saik Road, in the conserved area of Bukit Pasoh, is now one of Singapore’s hottest areas, with trendy hotels, bistros and boutiques. Just outside the main Chinatown area, the enclaves of Ann Siang Hill and Club Street lure expats with restaurants such as the Peruvian-style Tiger’s Milk and watering holes like Gem Bar.

Chinatown is also home to a vibrant arts scene, including the Red Dot Design Museum and ReDot Fine Art Gallery. “The art scene in Singapore continues to grow, and it has become significantly more professional in the last 10 years,” ReDot director Giorgio Pilla says. “We chose the new location as it has for 10 or more years been a visual-arts cluster. I love the iconic building we are in, and I love the fact that we still get a lot of natural traffic, given the high profile of the building, but yet we have a nice relaxed ambiance, unlike a shopping mall.”

**스리 베라마칼리암만 사원은 리틀인디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왼쪽 페이지). 새롭게 선보인 인도 문화유산센터 내부(위).**

**Sri Veeramakaliamman Temple is among the oldest structures in Little India (opposite). The new Indian Heritage Center (above).**

많으면서도 북적거리는 쇼핑몰과 달리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점도 참 좋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중국 본토의 풍경과 냄새로 자극한다면, 리틀인디아는 인도 이민자 공동체의 색감과 소리로 생동감을 안겨준다. 세랑군 로와 송게이 로, 그리고 잘란브사르 로가 경계를 이루는 이 지역에는 인도 고유의 건축물과 문화가 가득하며, 10월과 11월에는 등명제(燈明祭)를 비롯한 각종 축제로 더욱 활기를 띤다. 거리에는 향신료 노점과 보석 가게, 사리 전문점이 즐비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역시 인도 요리를 두루 맛볼 수 있는 식당가일 것이다. 스리 베라마칼리암만 사원이 중심을 이루는 리틀인디아 남단에는 특히 채식주의 식당이 많이 포진해 있다. 1947년에 문을 연 세랑군 로의 코말라 빌라스는 싱가포르 내 타밀 족의 아지트 같은 곳이며, 마드라스 뉴 우들랜즈 레스토랑은 남인도의 품미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BURSTING WITH FLAVOR** Little India, the area bounded by Serangoon Road, Sungei Road and Jalan Besar, is rich in architecture, culture and history and buzzes with life during October and November festivals like Dewali. The streets are lined with spice stalls, jewelry stores and sari shops, but the main draw is the restaurants, which serve cuisine from every corner of the subcontinent. There are large numbers of vegetarian eateries at the southern end of the neighborhood, clustered around Sri Veeramakaliamman Temple. One of the stalwarts for Tamil locals is Komala Vilas on Serangoon Road, which opened its doors in 1947, and South Indian flavors entice the senses at Madras New Woodlands Restaurant.

New to Little India is the Indian Heritage Center, which divides its exhibits into five themes, including the contributions of Indians in Singapore. Another debut this year was Artwalk Little India, a public art project celebrating the district’s heritage and culture. Started as part of Singapore Art Week, it engages the public through



리틀인디아에 새로 문을 연 인도 문화유산센터에서는 인도 이민자들이 싱가포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비롯하여 총 다섯 가지 주제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역시 올해 발족한 '아트위크 리틀인디아'는 이 지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기리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싱가포르 아트 주간'의 일환으로, 전시와 영화, 음악, 공연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다가간다.

리틀인디아와 인접한 잘란브사르는 싱가포르의 신(新) 명소다. 독특한 분위기의 바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를 구경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 체썬왓 하드웨어, 그리고 1925 마이크로브루어리 앤드 레스토랑 등이 유명하고, 중의학약제사협회 건물을 개조해서 새로 문을 연 드러기스즈도 인기가 높는데, 이곳에선 23가지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무슬림 공동체인 캄퐁글람은 세 개의 문화유산 지구가 만나는 삼각형의 북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이 세련된 생활 양식과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와 하늘 높이 솟은 술탄 모스크 인근에는 노천 카페, 그리고 현지인이 즐겨 먹는 음식부터 일식과 스웨덴, 멕시코 요리에 이르는 다국적 음식을 파는 식당이 빼곡하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지 디자이너 브랜드를

art installations, films, music and performances.

Neighboring Little India is Jalan Besar, one of Singapore's up-and-coming areas. Popular draws include the coffee roastery Chye Seng Huat Hardware, where patrons can sit around an island bar and watch the baristas at work. A trendy new bar, Druggists, occupies the former headquarters of the Chinese Druggists Association and has 23 craft beers on tap.

Occupying the northeast corner of the triangle formed by the three heritage neighborhoods is Kampong Glam, the center of Singapore's Muslim community. Here an eclectic blend of history and culture mingles with a trendy lifestyle scene. The lanes near the Malay Heritage Center and towering Sultan Mosque are filled with outdoor

**캄퐁글람의 술탄 모스크는 싱가포르 말레이 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아래). 마리나베이 지역에 위치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공원 전경(오른쪽 페이지).**

**The Sultan Mosque is a key landmark of Kampong Glam, Singapore's Malay neighborhood (below). Gardens by the Bay (opposite).**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하지 레인을 즐겨 찾는다. 그리고 캄퐁글람과 가까운 거리에 들어선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에서는 운동 경기 관람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와 연관이 없는 문화 행사도 풍성하게 진행된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인데, 지난 9월에 재개장한 상설관에서는 이 도시국가의 역사를 보다 깊이 조망해볼 수 있다. 이번엔 특별히 스위스의 유명 향수 회사인 지보단과 손잡고 전시 내용에 맞춰 비 온 후의 상쾌함을 안겨주는 향수에서부터 공해가 심했던 시절 싱가포르 강의 고약한 냄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향을 개발했으며, 싱가포르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시티'라는 이름의 향수는 박물관의 기념품 가게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박물관을 나설 때면 협소한 영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세기 만에 눈부신 발전을 거둔 이 도시국가를 다시금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싱가포르가 미래를 향해 성큼 도약하는 한편으로 말레이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의 문화유산이 여전히 현재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 그 지혜로운 공존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글 말린 골드먼 사진 보아즈 로템

cafés and eateries featuring everything from local favorites to Japanese, Swedish and Mexican cuisines. For shopaholics, the popular Haji Lane is home to many stores selling the creations of local designer brands. Just a hop, skip and a jump from Kampong Glam is the new Singapore Sports Hub, which offers sports spectacles and a wide range of public exercise and sport facilities.

Another place where all three of Singapore's main cultures blend together is the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which reopened its permanent galleries in September of this year. With help from the Swiss flavor and scent maker Givaudan, the museum created various evocative smells for the exhibits and even developed a fragrance named City, in a nod to Singapore's 50<sup>th</sup> birthday.

Visitors are sure to leave the museum with a new appreciation of the city-state. As the Lion City bounds into the future, it is comforting to know that its Malay, Chinese and Indian districts are still firmly planted in the present.

By Marlene Goldman Photographs by Boaz Rottem



# Sports Central 스포츠 애호가의 중심지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를 만족시키겠다는 포부 아래 탄생했다.

**Drawing professional athletes as well as health-conscious locals, the Singapore Sports Hub aims to satisfy all with its multiple venues.**



칼랑 분지를 굽어보는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www.sportshub.com.sg)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국립경기장으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스포츠와 공연예술 관람, 취미 활동을 한 장소에서 두루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운데에 자리 잡은 5만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은 개폐식 지붕 아래 럭비와 크리켓, 축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가 개최된다. 주변 시설로는 1만2000석 규모의 실내 경기장, 레인 10개의 대회용 수영장과 레인 8개의 훈련용 수영장을 갖춘 OCBC 아쿠아틱 센터, 그리고 수상 스포츠 센터 등이 있다. 그 밖에 스포츠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대형 체스판 등의 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수영장과 비치발리볼 경기장, 실내

암벽장 등 여러 시설의 이용료와 장비 대여료도 아주 저렴한 편이다. 단, 분주한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의 요금이 다를 수 있다.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의 탄생은 시민들의 활동적인 생활 양식을 이끌 목적으로 싱가포르 스포츠 위원회가 마련한 비전 2030 전략의 일환인데, 이는 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연장을 꾀하려는 20주년 장기 로드맵이다. 스포츠 행사 외에도 콘서트와 가족을 위한 공연, 각종 대규모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실제로 올 여름에는 제28회 동남아시아 게임을 비롯한 다수의 행사가 열렸으며, 앞으로 예정된 행사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다양한 무술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윈 챔피언십, 그리고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테니스 리그 등이 있다.

Set on 35ha of land overlooking the Kallang Basin, the Singapore Sports Hub (www.sportshub.com.sg) complex opened to the public in June 2014, taking the place of Singapore's original National Stadium. With construction commencing in 2010, the complex was designed to accommodate sport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offerings. The centerpiece is the new 55,000-seat National Stadium, sporting a retractable roof and hosting rugby, cricket and soccer matches, among others. Surrounding venues include the 12,000-seat Singapore Indoor Stadium; OCBC Aquatic Center, with a 10-



lane competition pool and eight-lane training pool; and Water Sports Center for sports such as canoeing. There is also a sports library, a mall and free facilities including a skate park and a giant chessboard. For other facilities, there are booking rates and equipment charges. One of the goals behind the project is to help Singaporeans become more physically active, part of the Singapore Sports Council's Vision 2030 strategy, a 20-year road map for using sports to help Singaporeans live long, healthy lives. Besides sporting events, the complex hosts concerts and other large-scale spectacles. For example, this past summer, the Singapore Sports Hub celebrated its one-year anniversary with several big events, including the 28<sup>th</sup> Southeast Asian Games. Upcoming events include a Taylor Swift concert, the ONE Championship of mixed martial arts and International Premier Tennis League matches.



# Urban Village 싱가포르 무슬림 공동체의 중심 캄퐁글람

싱가포르 무슬림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 구심체인 캄퐁글람. 이 매력적인 지역의 모스크와 상점, 레스토랑에서는 수시로 온갖 감각의 향연이 펼쳐진다.

**Singapore's Muslim community convenes in Kampong Glam's mosques, shops and restaurants, all of which offer a feast for the senses.**



The compact grid of corridors and alleys that snake through Kampong Glam bustles with cafés, boutiques and restaurants, a far cry from the neighborhood's origins as a fishing village at the mouth of the Rochor River. Here, antiques shops intermingle with Middle Eastern restaurants and bistros, all set in restored heritage buildings. The name Kampong Glam is derived from the Malay word *kampong*, which means village, and *glam*, after the *gelam* tree that used to grow in Singapore. The neighborhood's cultural heritage is still on full display. Arab Street's shopkeepers hawk batiks and baskets, while Bussorah Street vendors sell Muslim-inspired crafts. Kampong Glam Café is often full of patrons dining on *nasi goreng* and sipping *teh tarik*, a hot milk tea. At the end of the street is the Sultan Mosque. The current building dates back to 1924 and was fashioned after the Taj Mahal, though with

Persian, Moorish and Turkish themes. At the heart of the district sits the 1840s-era Istana Kampong Glam, the former Sultan's palace, which since 2005 has been serving as the Malay Heritage Center. But the main attraction for visitors is the shops lining some of the narrow lanes, notably Haji Lane. On weekends, Haji Lane becomes a car-free zone, and pedestrians can window-shop or dine alfresco. Kampong Glam still draws customers to its *shisha* (hookah) cafés, but all proprietors will have to cease offering shisha by July 2016. Despite the ban, Kampong Glam's cultural ties will no doubt remain intact.

캄퐁글람을 종횡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길과 골목에는 카페와 부티크, 레스토랑이 즐비해서, 로초르 강 하구의 어촌 마을이던 주변 일대의 풍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골동품 가게와 중동풍의 레스토랑, 비스트로 등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의 상점들은 하나같이 2층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캄퐁글람'이라는 이름은 마을을 의미하는 말레이어 '캄퐁'과 싱가포르에서 많았던 글람나무에서 따온 '글람'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 이곳 역시 곳곳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아랍 가의 가게 주인들은 납결염색을 한 천과 바구니를 소리쳐 팔고, 부소라 가의 상인들은 무슬림 색채가 강한 공예품을 판매한다. 캄퐁글람 카페에는 나시고렝에 곁들여 말레이시아식 밀크티인

테타릭을 마시는 손님들로 넘쳐난다. 길 끝에는 술탄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는데, 1924년에 완성된 현재의 건물은 타지 마할을 본떠 지었지만, 페르시아와 무어, 터키 문화의 색채가 골고루 섞여 있다. 이곳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스타나 캄퐁글람은 1840년대 술탄의 왕궁이었던 곳으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매력은 하지 레인과 좁은 골목길에 가득한 가게들이다. 주말에는 하지 레인 인근의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거닐며 눈요기를 하기에 좋다. 아직까지는 캄퐁글람의 물담배 카페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2016년 7월 이후로는 물담배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거리의 매력은 여전히 intact하다.



# Happy Hour 싱가포르식 쉬음 문화의 일면 칵테일 바

숨은 무허가 콘셉트의 술집부터 옥탑에 자리 잡은 술집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칵테일 바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배합의 맛을 선사한다.

**From hidden speakeasies to rooftop establishments, Singapore's cocktail bars are earning world recognition with their one-of-a-kind concoctions.**



leave a pleasant odor on your fingers after you put your drink down.” One of the classics at Jekyll & Hyde is the Mr Bean cocktail, based on a local soy curd dessert known as *tau huay*. Tippling Club, on Tanjong Pagar Road, which was named one of Drinks International's World's 50 Best Bars in 2013, serves creations like the Buenos Dias — *reposado* tequila, *chili padi*, agave, chocolate and espresso. Top among the speakeasy bars and sans signage, 28 Hong Kong Street draws Singapore socialites and those looking to be seen. Finding Operation Dagger requires a dark walk in a stairwell before reaching an entryway of dangling lightbulbs. The bar displays hand-labeled bottles containing spirits distilled on the premises. For a change of scenery, the 28-seat D Bespoke is a take on a Ginza-style bar. The bar is helmed by Kanetaka Daiki, who designed its teak-wood interior and is an expert on sherry.

전 세계에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칵테일을 유행시킨 이 섬나라는 다양하고 독특한 칵테일로 메뉴 목록을 확장해가고 있다. 요즘 떠오르는 일부 술집은 현지 재료를 부쩍 많이 사용한다는 게 차이나타운 근처 탄중파가르에서 ‘지킬 앤드 하이드’를 운영하는 지배인 알렉스 탄의 전언이다. “다채로운 방법으로 고객의 감각을 사로잡는 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음료를 따르는 소리부터 색다른 풍미를 더하기 위해 열을 가한 향료의 냄새, 심지어 미리 차갑게 얼려놓은 유리잔을 쥘 때의 감각과 시트러스 오일을 뿌려서 음료수를 내려놓은 후에도 손가락에 상쾌한 냄새가 감동하게 하는 것까지 그 방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채롭습니다.” 지킬 앤드 하이드의 대표 메뉴 가운데 하나는 미스터 빈

칵테일이다. 탄중파가르 로에 자리 잡은 ‘티플링 클럽’은 2013년에 드링크 인터내셔널에서 세계 50대 술집에 선정된 바 있으며, 대표 메뉴는 레포사도 테킬라와 매운 고추, 웅설란, 초콜릿에 에스프레소를 혼합한 부에노스 디아스다. 간판 없이 운영하는 술집 가운데 가장 유명한 ‘28 홍콩 스트리트’는 싱가포르의 명사들이나 트렌디한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숨은 무허가 술집이라는 콘셉트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오퍼레이션 대거’에는 손글씨로 라벨을 적고 직접 만든 술을 담은 병이 진열되어 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른 ‘디 비스포크’는 일본 출신의 가네타카 다이키가 운영하는 도쿄 긴자풍의 술집이다. 가네타카는 티코나무가 돌보이는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고 한다.

The island country that brought the world the Singapore sling cocktail is expanding its repertoire with a range of bespoke concoctions. Some of the trendiest bars are using ingredients that Singaporeans have come to recognize as undeniably local, according to Alex Tan, bar manager at Tanjong Pagar's Jekyll & Hyde, near Chinatown. “Drinks that engage customers on multiple levels are all the rage now,” Tan says. “From the sound of ice shaken or stirred into the drink, to the smell of heated spices that add a different dimension, and even the tactile experience of holding a prechilled glass peppered with citrus oils that

**찾아가는 길**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www.changiairport.com)은 그 자체가 관광 명소인데, 두 개의 영화관과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마사지 숍, 옥상에 해바라기 정원과 나비 정원까지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체류할 시간이 길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항에서 제공하는 빈나절 일정의 문화유산 투어에 참여해서 차이나타운과 리틀인디아, 그리고 캄퐁글람 등의 문화 명소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싱가포르의 지하철과 신속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인 SMRT(www.smrt.com.sg)는 이용이 편리하며 공항을 경유한다.

36번 버스는 창이에서 도심으로 운행하는데, 정확한 요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창이 공항 전철역에서 EZ 링크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SMRT는 마리나베이와 쇼핑 명소인 오치드로드, 차이나타운, 캄퐁글람과 리틀인디아를 비롯한 도심 대부분의 명소를 지난다. 싱가포르의 버스 시스템 역시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택시를 타려면 지정 승강장을 이용해야 한다.

**추천 숙박지**

싱가포르에는 고급 호텔과 국제적인 브랜드의 호텔이 두루 포진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부티크 호텔도 많다. 리틀인디아의 언리스트드

컬렉션이 소유한 '원더러스트 호텔(www.wanderlusthotel.com)'도 그중 하나인데, 1920년대 학교 건물을 호텔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시설을 원한다면 2012년에 차이나타운 인근의 피커링에 문을 연 '파크로열 온 피커링(www.parkroyalhotels.com)'을 고려해볼 만한데, 옥상에 트렌디한 바를 갖추고 있다. 캄퐁글람에 있는 '배가본드(www.hotelvagabondsingapore.com)'는 흥미로운 예술 작품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부티크 호텔이다. 객실 2개를 상주 예술가를 위한 전용실로 따로 배정해놨을 만큼 매력적인 예술 공간이기도 하다.

**추천 먹을거리**

차이나타운 케옹사익 로에 자리 잡은 마흔 석 규모의 '큐어(www.curesingapore.com)'는 오너 셰프인 앤드루 월시가 운영하며, 아스파라거스부터 대황에 이르는 제철 채소를 이용한 요리가 특징이다. 수석 셰프인 앤드루 노센티가 현지 사업가인 평로릭과 손잡고 배가본드에 문을 연 '5쿼터(www.5thquarter.com.sg)'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모던 분위기의 그릴에서는 염지육(鹽漬肉)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는데 럼주에 재워서 숙성한 돼지고기 배살부터 소금과 후추를 가미한 내장까지 모든 부위를 사용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Singapore daily.



배가본드 호텔 Hotel Vagabond

**GETTING THERE**

Singapore's Changi Airport (www.changiairport.com) is a destination unto itself, with two movie theaters, video game arcades and even a butterfly garden. For those spending only a short amount of time in Singapore, the airport offers a daytime Heritage Tour of the cultural districts of Chinatown, Little India and Kampong Glam. Singapore's subway and mass rapid transit system, or SMRT (www.smrt.com.sg), is easy to navigate and stops at the airport. Public bus 36 also connects Changi to downtown. Exact fare is needed. Alternatively, an EZ-

Link card can be purchased at the Changi Airport train station. The SMRT connects most of the city's highlights, including Marina Bay, the shopping hub Orchard Road, Chinatown, Kampong Glam and Little India. The city also has an efficient system of buses. Pickup points for taxis are at official taxi stands.

**WHERE TO STAY**

Luxury hotels and international brands proliferate throughout Singapore, but there are also many boutique and independent properties, such as Little India's Wanderlust Hotel (www.wanderlusthotel.com), owned by

the Unlisted Collection. The four-story building started out in the 1920s as the Hong Wen School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29-room hotel, featuring works from award-winning Singapore design agencies. For a more upscale option, Parkroyal on Pickering (www.parkroyalhotels.com), near Chinatown, features a well-being floor with a spa and a rooftop bar. Hotel Vagabond (www.hotelvagabondsingapore.com), in Kampong Glam, is a boutique hotel filled with intriguing art and design touches. Two of its 42 rooms are permanently reserved for artists-in-residence.

**WHERE TO EAT**

Located on Chinatown's busy Keong Saik Road, the 40-seat Cure (www.curesingapore.com), run by chef-owner Andrew Walsh, showcases seasonal produce, ranging from asparagus to rhubarb. The hot spot 5<sup>th</sup> Quarter (www.5thquarter.com.sg), which is located in Hotel Vagabond, is a joint venture between executive chef Andrew Nocente and local entrepreneur Peng Loh Lik. The Italian restaurant specializes in meat curing and serves dishes that use all parts of the animal, from rum-cured pork belly to salt-and-pepper tripe.